

전남동부지역 인사와의 오찬 간담회

동북아 중심국가 구상에서 광양만은 매우 주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오늘 토론으로 늦었는데 여러분들이 박수를 보내주시는 것을 보니까 따뜻하게 맞아주는 것 같아 감사합니다. 지난 93년부터 순천 사람이 제 비서가 되어서 전남 동부지역을 자주 방문하게 됐습니다. 순천 광양 분들에게 많은 정치적 지원을 받았으며, 경선 때에도 순천 광양에서 출발하고, 후보가 된 후에도 첫 번째 방문은 광양으로 했습니다. 그 때 마침, 정철기 의원의 당원 단합대회에서 인사 드렸습니다. 여러분에 의해 당선되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된 후에도 감사 인사를 드리기 위해 여기에 제일 먼저 와야 하는데 그걸 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대도시의 중심으로 오게 되어서 오늘 까지 늦어지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광양항을 생각의 중심에 놓고 한국이 동북아 물류 중심으로 어떻게 발전할 것인가에 대해 토론했습니다. 서울에서 충분히 할 수 있으나 인사 드리려고 왔습니다. 오늘 논의한 동북아 중심국가 구상에서 광양은 매우 중요한 곳입니다. 그 상징성을 감안해서 오늘 찾아 뵙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오면서, 오는 김에, 능률상 광주에도 일거리 만들어서, 광주도 들리고 광양도 들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효율적이겠다고 구상도 했지만, 그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뉴스 가치라든가 사람들 느낌이 광주에 집중됩니다. 그렇게 되면 오늘 논의하는 물류문제와 광양이 부각되지 않아서, 효과가 떨어

집니다. 광양을 방문하게 되어서 광양분의 기분도 좋긴 하지만 광주를 함께 방문하게 되면 광양 분들이 덜 좋을 것 같아서 오늘 하루는 광양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광양항 미래에 대해 많은 얘기를 나누고 주문도 받고 있습니다. 건의 받은 내용에 대해 소개를 일일이 안 해도 여러분은 잘 알 것입니다. 저는 부산에서 나서 부산항 바라보면서 살았기 때문에 항만의 중요성을, 느낌으로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수부 장관을 하면서 광양항 문제를 많이 다뤘습니다.

(이 부분은 항만 운영 관련 전문용어를 사용하면서 말을 했음)운영자가 될 듯합니다. 이 과정에 깊이 관여하고 건설계획도 기존 계획을 다시 수정하면서 건설 계획을 짰습니다. 그래서 잘 알고 있습니다. 미래의 가능성도 잘 알고 있습니다. 중국의 상해항이 빠른 속도로 개발되고 있고, 중국으로 일부 船社들은 중국으로 옮겨가고 있어서, 여러분도 상당히 걱정할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항만 경쟁력은 위치적 조건과 주변의 연관된 산업 시설이 핵심적인 것입니다. 설사 일시적으로 성장이 멈추었거나 일부 흔들리는 경향이 나타나도 전체 판이 짜지고 나면 경쟁력 갖추게 됩니다.

그러나, 광양항이 여러 가지 지원 시설, 산업 조건이 갖추어있지 않습니다. 선사, 대리점, 화물 운송사, 운송체계, 배후도로, 단지, 공단, 이 모든 점에서 충분히 갖추어져 있지 않습니다. 성장이 가다가 멈춰하는 상황입니다. 전체적으로 부산항을 빠르게 개발하고 있지만, 광양항도 개발되면 이 지역 동북아 물류 중심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불안해하지 말고 자신감 가지고 광양항 개발에 집중해 주길 바랍니다.

중앙정부도 안심하고 미적거리지 않겠습니다. 중국의 다른 항만에 뺏기지 않도록 박차 가해서 반드시 광양항이 전체 물동량에서 부산항을 앞서는 항만이 되도록 박차 가해서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점심 맛있게 먹고 나중 말 듣고 마무리할 때 여러분의 말에 따라서 마무리 말을 할 기회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